



종교신문

The Religions Herald

2017년 8월 18일

발행처 종교신문 발행인 이현영 편집인 홍윤중 전화 02-2274-1971 Email jknewskr@naver.com http://jknews.kr 등록번호 서울 아 03128 창간일 2014년 5월 1일

국민 75.3% 개신교 불신, 신뢰 회복 방안은 '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정합동)이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 국민 75.3%가 개신교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전한 교회 재정 사용'을 우선으로 꼽았다.

예정합동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열고, 15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7월17일 설문 결과 사전 발표에 이어 열린 포럼으로, 소강석 목사와 이어령 박사 등을 패널로 불러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설문 응답자 1000명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6%,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6.4%였다.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2명(25.2%)이었다. 교단 인구 구성은 예정합동 19%, 예정통합 15.9%, 감리회 14.7%, 순복음 11.1%, 침례교 7.9% 등이었다.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로 '마음의 안식, 평안'(50.3%)을 제일 높게 꼽았다. '가족이 믿고 있어서'(17.6%),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17.4%)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무종교인들은 '관심 없음'(44.2%), '기존 종교 불신'(34.5%)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로 가톨릭(45%)을 꼽았다. 개신교는 25.8%를 기록해, 불교(27.4%)보다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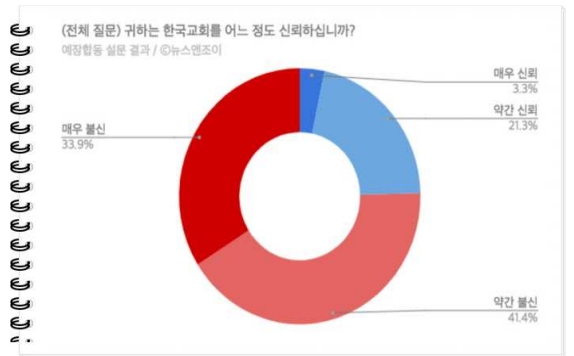
한국교회를 신뢰하는지 따로 물었더니 1000명 중 753명이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타 종교인들의 한국교회 불신 지수가 높았다. 불교인의 85.3%가, 가톨릭교인의 77.9%가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개신교인 중에서도 38.9%가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신뢰 회복 방안'은 '건전한 재정 사용(27.4%)'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개선(22.2%), 지도자의 모범 생활(16.9%)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독교 이단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는 여호와의증인 7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65.2%, 신천지 55.7%, 하나님의교회 51%였다.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안다(38.6%)보다 모른다(61.4%)는 응답이 더 많았다. 개신교인도 35.7%가 이단 규정 이유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전경. 이날 포럼에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교회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교회 신뢰도를 보여주는 그래프.

- ▶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톨릭'
- ▶ 타 종교인 대부분 개신교 불신
 - 불교인 85.3%, 가톨릭인 77.9%
- ▶ 신뢰 회복 '건전한 재정 사용'

미국인 대다수, '종단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 인식

대다수 미국인들은 종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 대다수(59%)가 종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한 반면, 종단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종단별로는 종단의 대사회적 긍정-부정 영향 비율이 복음주의 백인 개신교인은 각각 80%와 11%로 가장 긍정적이었다. 그 다음이 히스패닉 천주교인으로 73%와 16%였고, 주류 백인 개신교인이 68%와 20%, 흑인 개신교인 66%와 25%, 백인 천주교인 61%와 23%로 조사됐다. 반면 무종교인은 각각 34%와 46%로, 종교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매주 예배에 참가하는 이들은 각각 74%와 15%로 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가 더 많은 반면,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이들은 각각 38%와 43%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 인식이 낮아지고 부정적 영향 인식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이 각각 63%와 25%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대졸자로 각각 60%와 25%, 대학원 졸업자가 각각 57%와 27%, 박사학위 소지자가 48%와 36%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질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유주의적 성향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적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회에 대한 종단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사이의 비율이 75%와 12% 차이를 보인 반면, 같은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중도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각각 68%와 20% 차이를 보였다.

온건보수주의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회에 대한 종단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사이의 비율이 각각 58%와 29% 차이를 보인 반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각각 40%와 44% 차이를 보여 부정적인 견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8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통화로 진행됐으며, 이중 628명은 집전화 통화로 진행했고 집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1109명을 포함한 나머지 1876명은 휴대전화 통화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공화당 지지자들(1050명)은 ±3.5%포인트고, 민주당 지지자들(1,230명)은 3.2%포인트다.



▲ 미국인들 대다수(59%)는 종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대선 때 공화당 지지 종교인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구호가 인쇄된 모자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 미국 로스앤젤레스 치노힐즈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누구든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미국에는 기독교외에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한국종교발전포럼, 종교 간 이해 돕기...원불교 조명

한국종교발전포럼이 국내 민족 종단 중 하나인 원불교의 핵심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종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열린 제79회 한국종교발전 월례포럼에서는 '원불교의 핵심사상: 일원'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박광수 교수(증산 박도광 교무·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장)가 맡았다.

박 교수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의 생애와 더불어 원불교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원불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교리를 소개해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는 "원불교는 일원 철학을 통해 참 문명사회를 실현코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연에 따르면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은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에서 1891년 탄생했다. 26세에 깨달음 얻고 종교운동을 영광에서 시작한 후 변산에서 1924년 교리를 완성했다. 그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어를 내걸고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후천개벽의 종교를 시작했다.

이후 원불교는 1917년도 저축조합운동으로 시작해 일제치하 1918년에는 영산지역 개펄을 막아서 논으로 만드는 방언공사(防堰工事)를 진행하면서 수행생활의 기틀을 갖추나갔다. 이는 낮에는 일해 자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저녁에는 법문을 통해 깨우침을 얻는 신앙생활로 현재 원불교 내에서 '영육쌍전(靈肉雙全)'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원상(○)은 원불교에서 본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의 상징이며 이를 '일원상의 진리' 또는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한다. 일원상의 진리는 '본원, 심인, 본성'으로 설명되는데, 진리를 드러난 현상만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숨은 부분까지 파악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원불교는 내 마음 속에 이미 일원상의 진리가 있으므로 이를 알아내기 위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등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종교발전포럼은 우리나라 종교계 지식인들이 모여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단체로, 2009년 창립했다. 매일 한 차례씩 조찬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후에는 토론을 진행한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 포럼은 9월 증산교, 10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1월 대종교로 예정돼 있다.



▲ 한국종교발전포럼이 개최한 '제79회 한국종교발전 월례포럼'에서 '원불교의 핵심사상: 일원'을 주제로 강연한 박광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 한국종교발전포럼 행사 전경.

【종교신문 뉴스레터로 제공되는 뉴스는 취재 또는 인터넷 뉴스 발체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비정기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2274-1971